

2010. 1. 18 제231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동향

2010. 1. 18 제231호

목 차

문화·디자인

1. '베를린 뮤직 위크' 행사 준비에 본격 착수 (베를린)
2. 2010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 (베를린)

산업·경제

3. 도시를 '쇼핑천국'으로 만들어 매년 1100만 관광객 유치 (상파울루市)
4. 외국인 인재와 투자자에게 장기 거주와 출·입국 편의 제공 (상하이)

건강·복지

5. 자녀 양육 보조금 확대 (독일)
6. 휴대전화기에 방사선 방출량 표기 의무화 추진 (샌프란시스코)
7. 난민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지원 (런던)
8.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정보 사이트' 개설 (도쿄)

행정·재정

9. 경기침체를 반영해 2년 연속 지방세 동결 (런던)
10. 생활서비스 통합센터 운영 (상하이)

목 차

방재·안전

11. 긴급대피 시 필수 휴대물품 상비 권장 (뉴욕)

도시환경

12. 그린주택 인증제 도입 (미국 라구나우즈市)
13. 쓰레기장을 유기농 채소밭으로 조성 (리우데자네이루市)
14. 산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연료 개발 지원 (런던)
15. 都 행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조사 (도쿄)
16. LED 가로등에 온난화 방지 응원메시지 작성 (일본 이바라키縣)

도시교통

17. 연료 소비 절감형 버스 제작 (런던)

도시계획·주택

18. 주택 임대료 지도 작성 (런던)

1. ‘베를린 뮤직 위크’ 행사 준비에 본격 착수 (베를린)

○ 베를린市는 2010년의 가장 큰 문화행사이자 올해 처음으로 여는 ‘베를린 뮤직 위크’(Berlin Music Week)의 개최일자와 주관기관, 행사장 등을 최근 발표함. 市 산하 공기업인 베를린 문화기획공사, 베를린 음악위원회, 베를린 클럽위원회, 베를린 축제위원회, 市 경제기술국 등이 행사를 주관하여 2010년 9월 6~12일 1주일간 열 계획임.

- 베를린 뮤직 위크는 창조경제를 살리고자 市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행사임. 市는 첫 번째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베를린이 음악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연초부터 행사 준비에 착수함.

· 콘서트장, 바, 클럽, 디스코텍 등 1000여 개의 공간에서 음악공연과 함께 음악 박람회, 콘퍼런스, 교육 프로그램 행사 등을 동시에 열고 대중음악의 모든 장르와 음악시장, 음악문화 등의 주제를 다룸.

- 이번 행사에서는 전 세계의 음악관계자와 대중매체의 만남을 주선하고 디지털 음악 생산과 공급 동향 등 음악계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봄. 음악과 관련 있는 게임, 패션, 영화, 광고 등과 같은 사업 분야와도 활발하게 접촉·교류할 수 있는 장(場)도 마련됨.

· 市는 음악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 팬과 전문가가 만나고 타 분야의 전문가와 소비자도 함께 함으로써 대중음악 발전의 토대를 더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1/04/151141/index.html)

2. 2010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 (베를린)

○ 역사가 오래되고 저명한 과학 분야 5개 연구기관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베를린市는 市 차원에서 2010년을 ‘과학의 해’로 정함.

- 해당 기관은 2010년에 건립 350주년이 되는 국립도서관, 창립 300주년을 맞이한 샤리테 대학병원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과학아카데미, 건립 200주년이 되는 훔볼트 대학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막스플랑크 연구소임.
- 市는 ‘과학의 해’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해당 기관이 여는 개별 행사 외에 인근 도시에 있는 과학 연구기관의 협조를 얻어 市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열 계획임.
 - 현재 계획된 행사는 2010년 9월 말부터 2011년 초까지 열 ‘베를린 300년 과학사’란 전시회임. 이 전시회는 베를린에서 태어나서 활동한 저명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 발명가 등을 소개함.
- 市는 이를 계기로 과학도시 베를린의 오랜 전통을 널리 알리고 과학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임.

(www.kulturprojekte-berlin.de/projekte/wissenschaftsjahr-2010/)

한 줄 뉴스

● 뉴욕

-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긴급상황 대응 가이드 ‘Ready New York Guide’ 보급
- 100년 이상 된 역사 건축물 밀집지역을 ‘역사지구’로 지정해 보존

● 리우데자네이루市

- 2012년까지 공공쓰레기 배출량 8% 감축을 목표로 코파카바나 해변 등에 쓰레기 계량기 설치

3. 도시를 ‘쇼핑천국’으로 만들어 매년 1100만 관광객 유치 (상파울루市)

○ 브라질 상파울루市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매년 1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특히 연말에는 성탄절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함.

- 상파울루를 방문하는 목적으로 비즈니스, 대규모 이벤트, 레저, 문화 체험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 쇼핑도 큰 비중을 차지함.

· 상파울루에는 약 240만 개 상점 외에도 77개의 쇼핑센터, 59개의 특별 상점이 있음. 성탄절 시즌이 되면 상파울루를 방문하는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중 20%는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함. 브라질 국내를 비롯해 미국, 아르헨티나, 독일, 칠레 등에서 많이 찾음.

(www.prefeitura.sp.gov.br/portal/a_cidade/noticias/index.php?p=34407)

4. 외국인 인재와 투자자에게 장기 거주와 출·입국 편의 제공 (상하이)

○ 중국 상하이市가 외국의 자본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의 고급인재와 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조치를 2010년부터 시행함.

- 7개 편의조치는 2009년 7월 푸둥에서 시범 시행한 것으로 2010년부터 市 전역으로 확대됨. 출·입국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음.

· 명예시민, 백옥란 영예상, 백옥란 기념상 등을 받은 외국인은 5년간 거주 허가 신청이 가능함.

· 외국의 고급인재나 유명인사는 3~5년간 거주 허가 신청이 가능함.

· 국가나 성(城) 차원에서 설립한 과학 연구기관이나 고등학교에서 초빙한 외국의 학술·과학 연구자나 교사는 3~5년간 거주 허가 신청이 가능함.

· 첨단 업종에 속하거나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투자기업의 외국인 대표나 임원은 3~5년간 거주 허가 신청이 가능함.

- 다국적기업의 상하이지역 본부나 연구개발센터 등의 외국인 대표와 고급 관리자, 과학기술자는 3~5년간 거주 허가 신청이 가능함.
- 300만 달러(약 33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 기업의 외국인 대표와 임원은 3~5년간 거주 허가 신청이 가능함.
- 이들 외국인 고급인재가 상하이에 장기 거주하지 않고 수시로 출·입국하고자 할 경우 3~5년간 수시 출·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www.police.sh.cn/shga/gweb/zfgkxxx/gkxxx_view.jsp?pa=6873a50917f316ded70824b28856cf634af52ddca78968dd0080db291354b6dd8fa0f7bef7bf3297)

건강 · 복지

5. 자녀 양육 보조금 확대 (독일)

○ 독일 연방 가족·여성·청소년부는 가족정책을 가장 중요한 미래정책으로 간주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보조를 확대하기로 함. 2010년부터 양육 보조금이 자녀 1명당 20유로(약 3만 3000원)씩 늘어남.

-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매달 각각 184유로(약 30만 원), 셋째 아이에게는 매달 190유로(약 31만 원), 넷째 아이 이후부터는 매달 각각 215유로(약 3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됨. 이혼한 가정의 아이에게 지급되는 양육보조금도 확대됨.

- 독일 연방정부는 이밖에 낙태 허용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고 낙태와 관련해 임신부와 상담한 내용을 정식 문서로 작성하도록 함.

(www.bmfsfj.de/BMFSFJ/familie,did=133118.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양육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부모의 취업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보편주의적인 가족복지사업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이후 지원 대상범위와 지원수준을 계속 확대해 왔음.

-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아동복지권의 실현, 사회적 자원인 아동에 대한 양육비용 보조, 출산 장려와 미래 노동력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현재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자녀양육비 지원정책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 형태이며, 전반적으로 대상범위가 좁고 지원수준이 낮음.
- 셋째 아이 이후 0~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의 50% 혹은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양육지원금은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양육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범위와 지급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6. 휴대전화기에 방사선 방출량 표기 의무화 추진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市는 휴대전화기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가 휴대전화기 구입 시 방사선 방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함.
- 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기 판매업자는 휴대전화기 가격을 표시한 글자의 크기 이상으로 전자파 인체흡수율(SAR)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점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연방통신위원회는 SAR 기준치를 1.6W/kg 이하로 제한하여 휴대전화기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 모든 휴대전화기는 헤드셋과 함께 판매해야 하고, 방사선에 더 민감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함.

- 하지만 무선통신협회는 휴대전화기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음.

(www.engadget.com/2009/12/24/san-francisco-considers-displaying-phone-radiation-levels-next-t)

(www.sfgate.com/cgi-bin/article.cgi?f=/c/a/2009/12/15/MNHJ1B49KH.DTL)

7. 난민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지원 (런던)

- 런던市는 난민 등 이주민이 다민족·다문화 사회에 쉽게 동화하고 취업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풍부한 런던’(London Enriched) 사업계획을 최근 발표함.

- 더욱 체계적인 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市는 우선 중앙·지방정부의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와 함께 비(非)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확대방안을 모색함.
- 이외에 런던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으로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 지역사회 치안 강화, 어린이·청소년 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와 동등 기회 부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487)

(www.london.gov.uk/mayor/migration/strategy.jsp)

한 줄 뉴스

- 일본 삿포로市
 - 생활협동조합 ‘코프 삿포로’에서는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디젤 연료로 240대의 택배차량 운영
- 일본 미사와市
 - 시민단체가 빈 페트병 2만 개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도심 광장에 전시

8.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정보 사이트’ 개설 (도쿄)

○ 도쿄都是 1948년 전후로 태어난 고령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시니어 정보 사이트’(www.senior.metro.tokyo.jp)를 2009년 12월 25일 개설함.

- 이 사이트는 고령자가 제2의 인생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함.
 - ① 취미나 특기를 살려 지역 문화활동 참여(중·노년 남성 요리교실, 건강 마작 클럽, 컴퓨터 교실, 걷기 운동 등), ② 지역사회 공헌 활동(자원봉사활동, 방과 후 교실 활동, 육아가정 지원, 방법 활동 등), ③ NPO 활동 참여, ④ 취업 및 학습(실버인재센터 등록, 평생학습 강좌 등) 등 4가지 주제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 기업이나 지역단체, 고령자 관련 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2/20jcp200.htm)

행정 · 재정

9. 경기침체를 반영해 2년 연속 지방세 동결 (런던)

○ 런던市는 현재의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하여 2년 연속 지방세를 동결하기로 함. 市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방세를 동결하려는 계획을 2010년 市 예산안과 함께 발표함. 이는 시민이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市는 공공서비스와 교통시설 개선, 청년 일자리와 직업훈련 확대 등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지할 계획임.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치안 분야에는 약 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청소년 폭력, 총기와 칼을 사용한 범죄, 버스 관련 범죄 예방에 사용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483)

10. 생활서비스 통합센터 운영 (상하이)

○ 중국 상하이市가 만든 생활서비스센터가 2010년 1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함. 현재 570개 서비스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생활서비스센터에서는 가정 교사, 인테리어, 청소, 가전제품과 일상용품 수리, 제품구매 안내, 직원 교육, 각종 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함.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전화(962512)나 웹사이트(www.962512.com)를 이용해 서비스 문의를 할 수 있음.

- 웹사이트에서는 지역별 업체 정보를 서비스 내용, 연락처, 시민 평가항목 등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음. 市는 서비스 범위를 계속 확대해 2012년까지 완벽한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 계획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10-01/05/content_18678419.htm)

방재 · 안전

11. 긴급대피 시 필수 휴대물품 상비 권장 (뉴욕)

○ 뉴욕市는 점점 늘고 있는 자연재해나 테러 등에 대비해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이 효과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물품을 상비해 둘 것을 권고하고 있음. 市는 이를 위해 'Go Bag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긴급하게 집을 떠나야 할 때 가지고 가야 할 필수 물품 등 긴급상황 행동요령을 제공함.

- 행동요령에 따르면 ① 신분증과 주요 서류(방수(防水)가 되는 주머니에 넣어둠), ② 집 열쇠와 자동차 열쇠, ③ 100달러(약 11만 원) 이상의 현금, ④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음식과 물, ⑤ 손전등, ⑥ 개인 상비약, ⑦ 긴급상황에서 가족과 만날 장소나 지도, ⑧ 유아가 있을 경우 분유나 기저귀 등의 물품을 휴대가 용이한 가방에 늘 준비해 둘 것을 권함.

(www.nyc.gov/html/oem/html/get_prepared/supplies.shtml#go_bag)

도 시 환 경

12. 그린주택 인증제 도입 (미국 라구나우즈市)

○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우즈(Laguna Woods)市는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주택을 그린주택으로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임. 이는 에너지효율 개선 정도에 따라 그린(Green), 스타 그린(Star Green), 스타 그린 플러스(Star Green Plus)의 3단계로 나누어 인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그린주택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점수를 쌓아야 함. 점수 누적방법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형인 에너지 스타(Energy Star) 모델로 제품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음.

·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면 20점, 기존 전구를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면 1점을 줌. 그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점수는 55점이며, 스타 그린 플러스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75점이 필요함.

- 인증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당 25달러(약 2만 8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그린 인증을 받게 되면 부동산시장에서 매력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www6.lexisnexis.com/publisher/EndUser?Action=UserDisplayFullDocument&orgId=1593&topicId=21355&docId=l:1093373074)

>>> 전문가 검토의견

- 라구나우즈市는 그린주택 인증 프로그램(Green Certification Program)을 도입해 미국 에너지효율 규격인 Energy Star 제품 사용과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에너지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기후임. 라구나우즈市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는 한국보다 일사량(日射量,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땅에 닿는 양)이 풍부하고 기후가 온난하므로,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낮음. 태양열 전지판은 지역의 일사량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생산성이 높은

태양열 이용이 용이함.

- Energy Star 인증을 위한 주택 에너지 등급시스템(HERS; Home Energy Rating System)은 1990년대부터 에너지 성능평가 툴로 사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툴 개발은 아직 초보 단계이며, 기후특성과 인체 및 생활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할 것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성능지표(EPI; Energy Performance Index) 검토서 또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건축물 대장에 에너지효율등급과 에너지성능지표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2년부터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도록 할 예정임.
- 서울시에서도 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건물의 성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관련 금융상품을 개발하며 건물 매매 시 건물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김민경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min@sdi.re.kr)

13. 쓰레기장을 유기농 채소밭으로 조성 (리우데자네이루市)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는 '리우 채소밭 프로젝트'를 시행해 자연환경도 지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도 제공하고 있음. 市는 쓰레기가 버려졌던 북부와 서부 지역 일부를 개간해 18개의 유기농 채소밭을 만듦.
- 인근 지역 주민이 채소밭을 일구고 있으며, 이들은 채소밭을 일구는 대가로 수확량의 50%를 가지고 가며 나머지 50%는 학교, 탁아소, 빈민가정, 고아원 등에 제공됨.
- 이 프로젝트는 시립학교에서도 시행되고 있음. 학생들은 직접 씨를 뿌리고 채소를 수확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음.

(noticiasrio.rio.rj.gov.br/index.cfm?sqncl_publicacao=20196)

14. 산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연료 개발 지원 (런던)

○ 런던개발공사는 런던 소재 Uptown Oil社가 바이오연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유럽 지역개발기금과 함께 적극 지원에 나섬. 이 업체는 대형 식당, 학교 등에 식용유를 제공하고 사용한 폐식용유를 무료로 수거한 다음 저탄소 바이오연료로 만듦.

- 이 회사는 런던개발공사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Knowledge Connect)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의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 연료를 개발해왔음. 회사 측은 연료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연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밝힘.

- 런던개발공사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전문가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해 1000여 개의 업체를 지원함. 기술 이전을 돕기 위해 100만 파운드(약 18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재원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으로부터 160만 파운드(약 30억 원) 이상을 모금함.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532)

15. 都 행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조사 (도쿄)

○ 도쿄都는 2008년도 都 행정·사업 수행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근 발표함. 都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5년 ‘지구온난화대책 도청 플랜’을 마련하고 2009년까지 都 행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4년 대비 10% 감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임.

- 조사결과에 따르면 都의 200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 대비 8.4% 감소함. 큰 성과를 낸 부서와 사업 분야는 하수도국(하수 슬러지의 탄화로 일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독립병원 경영본부(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조해 광열 에너지 소비 절감), 재무국(냉열 설비 개선), 교육청(독립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등임.

- 반면 환경국, 교통국, 경시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함. 환경국의 배출량 증가는 강수량 증가에 따른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량 증가 때문이며, 교통국은 도시전차 개통에 따른 에너지 사용 증가 때문임. 경시청의 배출량 증가는 정상회담 등의 경비 강화에 따른 차량연료 사용 증가 때문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2/20jcp300.htm)

16. LED 가로등에 온난화 방지 응원메시지 작성 (일본 이바라키縣)

- 일본 이바라키縣 상점가의 가로등에 처음으로 LED(발광 다이오드)가 2010년 1월 중에 설치됨. 縣은 우선적으로 JR 다가역(驛) 근처 약 1km 거리에 가로등 30개를 설치함. 적은 전력량으로 이전과 같은 밝기를 유지하는 LED 가로등의 수명은 약 9년 임.



- ‘히타치 온난화 방지협의회’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하기 전에 고교생들이 LED 전등 뒷면에 응원 메시지를 적도록 함.
 - 가로등을 설치하면 보이지 않게 되지만 가로등 배치도 등으로 자신이 작성한 전등을 알 수 있음. 10년 후 가로등을 교체할 때 본인이 다시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됨.

(요미우리신문, 2009. 12. 29)

도 시 교 통

17. 연료 소비 절감형 버스 제작 (런던)

○ 런던의 명물 중 하나인 2층 버스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의 주관업체가 ‘라이트버스’로 정해짐. 이 업체가 제작할 신형 버스 12~19대는 디젤연료 소비량이 기존 버스보다 40% 절감되고 디자인도 개선될 예정임.

- 2층 버스는 전통미를 살리면서 승객이 쉽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첨단 친환경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제작함.

· 최신 하이브리드차량 제작기술을 활용해 기존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연비를 15% 개선하고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배출량도 각각 40%, 33% 정도 줄여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신형 버스가 2011년 운행에 들어가면 이미 유럽 최대 규모인 친환경 버스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3903.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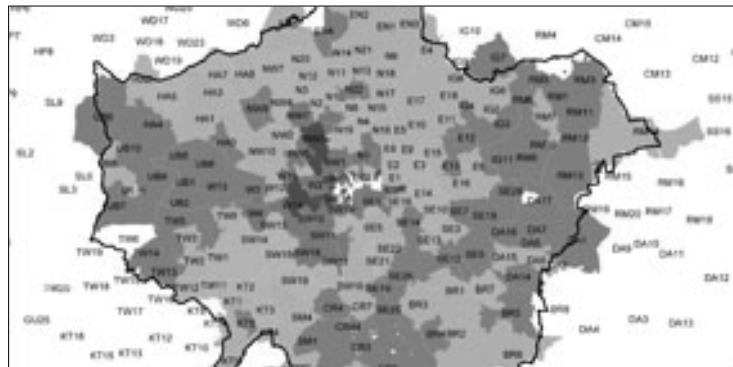
도시계획·주택

18. 주택 임대료 지도 작성 (런던)

○ 런던시는 주택 임대비용을 지도로 나타내는 홈페이지를 개설함. 시민은 처음으로 지역별 평균임대료를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됨.

- 주택 임대료 지도는 지역별로 민간 임대시장에서의 평균가격을 보여줌. 이는 기존의 부동산 중개인과 개인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격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실제 임대료를 기초로 작성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평균 임대가격을 보여줌. 이 지도는 임대료뿐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됨.

- 이 지도에 의하면 런던에서 방 1개짜리 주택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주당 92파운드(약 17만 원)임. 가장 저렴한 주택 임대지역은 런던의 다햄드(Dartford) 지역으로 방 2개짜리 주택 임대료가 주당 160파운드(약 29만 원)임. 런던에서 가장 비싼 곳은 사우스켄싱턴(South Kensington) 지역으로 주당 임대료는 625파운드(약 114만 원)인 것으로 파악됨.
- 런던에는 65만 가구 이상이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는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임대시장임.
- 市는 민간 임대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 임대조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 등을 포괄하는 임대주택 관리표준을 정해놓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4539)

>>> 전문가 검토의견

- 서울의 전세난이 심각하고 전세가 등 주택 임대료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런던의 주택 임대료 지도는 시의적절한 사례임.
- 우리나라에서 임대료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온라인정보는 주로 민간부문(국민은행, 부동산114 등)에서 중개업소를 활용해 호가(呼價)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음.
- 공공부문에서는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함) 주도로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주택 공시가격 등을 제공하며 2009년 12월 개설한 ‘서민주택정보’ 사이트에서 호가 기준 매매가, 전세가 등의 정보 조회 서비스를 지도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에서는 주택거래가격이나 임대료 정보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주택 공시가격, GIS 기반의 주택재고 정보는 제공하고 있음.
- 앞으로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정보 제공의 중복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서울시 차원에서 독특함을 살린 정보 제공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상영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syshin@sdi.re.kr)

한 줄 뉴스

- 쿠리치바市
 - 식품 안전기준을 준수한 재래시장 내 식당과 노점상에 ‘안전식품 인증서’ 발급
- 일본
 - 일본의 최대 아파트 건설회사인 다이쿄社에서는 아파트 옥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각 가정에 공급할 계획